

이주일의 책

한문학과 한시, 한국문학사의 든든한 밑받침으로 꽃피워낸 씨앗

■ 김형중 ‘한시 이야기’

이종근 기자 lig@sjbnews.com

‘한시 이야기(지은이 김형중 문학박사,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 교수, 발간 한국문학신문)’는 이매창을 비롯 한국작가 12명과 이백을 비롯 중국작가 6명 등 모두 18명의 시인들의 한시를 집중 조명했다. 김시습, 김인후, 김병연과 여류 작가인 황진이(黃眞伊), 이매창(李梅窓), 허난설헌(許蘭雪軒), 선시(禪詩)작가인 진각 혜신, 원각 충



지, 백운 경한, 태고국사 보우, 왕사 나옹화상, 서산대사 등 시인이 시세계와 문학 인생에 천착했다.

‘밝은날 강산은 아름다운데/푸른 봄 화초들은 무성하게 피었네/무엇하러 입을 모아 말을 할 거냐/만물들은 본래대로 이루어지는 것을(강산려江山麗, 아름다운 강산) 전문’ 조계종 3대 선사인 백운화상은 호는 백운(白雲)이고 법명은 경한(景閑)이다. 고려말 1298년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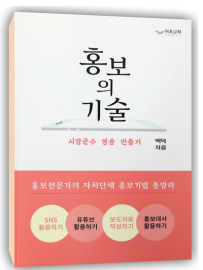


음 고부면 백운 마을에서 출생했고 어려서 출가해 구도에 전념했다. 가장 큰 업적은 1372년 역대 선사들의 주요 말씀을 수록해 ‘불조직지심체요절’을 편찬한 것이다. 1377년 그의 제자들이 지금의 청주 흥덕사에서 이를 금속활자로 간행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자본으로, 그 문화적 가치를 공인받아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전주시의회 백덕 홍보팀장, 30년 경험 녹인 저서

■ 자치단체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홍보의 기술’ 펴내

전주시의회 백덕 홍보팀장(59·사진)이 자치단체 홍보 기술을 폭넓게 다룬 책을 21일 출간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써낸 ‘홍보의 기술’이다. 모두 163쪽 분량의 이 책은 부제로 ‘시장군수



영웅 만들기’를 붙였다. 책에는 자치단체마다 홍보 트렌드로 떠오른 SNS 활용하기에서부터 유튜브 활용하기, 보도자료 작성하기, 홍보대사 활용과 자치단체 간의 품앗이 홍보 등 모두 5개 분

야의 홍보 방법 등이 담겨 있다. 저자는 15년 가량의 신문기자사를 거쳐 홍보 전담 공무원 등 30여 년간 홍보 분야에서 뛰었던 경험들을 살려 SNS와 유튜브로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법, 기자를 사로잡는 보도자료 작성법 등 실전에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썼다.

특히 스페셜코너에 ‘시장 군수의 소통하기’ 페이지를 따로 두어 시장·군수가 어떻게 주민과 소통할 것인지 그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홍보가 곧 연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권동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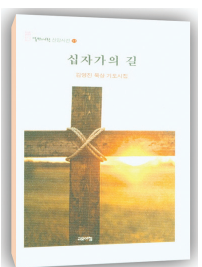
많은 시련과 고난의 시기에 필요한 묵상 기도시집

■ 김영진 ‘십자가의 길’

김영진 시인이 묵상 기도시집 ‘십자가의 길(고요아침)’을 펴냈다. 묵상을 통한 기도시는 현란한 시적 수사법을 동원하지 않는다. 평범한 일상어를 사용하면서 삶의 진술한 면을 그대로 드러내 전달력이 남다르다. 모두 8부로 구성된 시집은 ‘지성의 길1·2’, ‘영성의 길’, ‘순례의 길1·2’, ‘축

복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등의 소주제로 갈래를 타고 있다. ‘지성의 길’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어휘나 용어들을 시인의 시각에서 정리해 담았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감사에서부터 겸손, 갈등, 고난, 실패, 용서, 외로움, 위로, 정의, 지혜, 화해, 형통 등 삶의 고비마다 꼭 필요한 단어들을 꼬집어낸다.‘영성의 길’에는 직장과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때 방황을 하다 찾았던 설곡산의 다일 영성 수련원에서의 경험과 깨우침을 담은 시편들이 담겼다. 시인은 “나는 누구임니까/진실로 누구임니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주님을 알고서부터 “하루가 천만으로 넘쳐납니다”라고 노래한다. /이종근 기자



함축미 속에 배인 역사적 상흔

■ 이효복 ‘나를 다 가져오지 못했다’

‘나를 다 가져오지 못했다(지은이 이효복, 출판 문학들)’는 작가의 첫 시집으로 ‘아나키아’라는 말이 등장한다. 시집 맨 앞 ‘시인의 말’을 보자. “내가 가두려고 했던 것들/나를 스쳐 간 무수한 점멸/내가 본 첫 어둠/아나키아”. 그리고 본문 중 ‘아, 나의 슬픈 과지모도’라는 시

에는 “파멸의 시간 에 맞춰져 있는/눈부신 아나키아의 시계”가, 시집의 마지막 편인 「나의 꿈」에는 “시적 영감/아나키아 숙명”이 등장한다. 이 말에 열매이지 않더라도, 천천히 시집을 음미하다 보면, 이 시인이 꿈꾸는



세계의 윤곽이 희미하게나마 드러나는 데, 마지막 책장을 덮기 전에 독자의 마음에 남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아나키아’라는 말이다.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노르트담 대성당의 종지기 과지모도와 그의 운명의 대리자인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는 신부 프롤로와 근위대장 페비츠, 이들의 사랑과 욕망, 운명의 대서사가 펼쳐지는 『노르트담 드 파리』와 이효복 시집이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맺고 있을 터이 없다. /이종근 기자

질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 폴 로랑 아송 ‘질투, 사랑의 그림자’

‘질투, 사랑의 그림자(지은이 폴 로랑 아송, 옮긴이 표원경, 출판 한동네)’는 1부와 2부는 인간의 성격과 행동을 이해하는 정신분석 이론으로 질투를 살핀다. 질투에서 나온 감정들이 다양한 만큼, 정신분석의 개념들도 다양하게 등장해

서 성격을 이해하는 단초들을 제공한다. 3부는 문학과 사회 제도를 통해 질투의 증상들을 읽을 수 있게 배치되어 있다. 소설가가 그린 질투 현상의 배후를 정신분석으로 읽는 저자



를 따라가면서, 소설을 읽는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질투의 가면 속 진실은 무엇일까? 질투하는 사랑은 사랑일까? 얼마만큼 질투해야 그것이 사랑의 증표가 될 수 있을까? 질투가 동성애, 알코올 중독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가장 무서운 질투는? 인간의 욕망을 함석적으로 충족시키는 전통적인 축제 문화와 질투를 제도화한 결혼제도는 질투가 함석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 /이종근 기자

여탕에서 펼쳐지는 후끈 따뜻한 성장서사

■ 김유담 ‘이완의 자세’

‘이완의 자세(지은이 김유담, 출판 창비)’는 창비에서 선보이는 젊은 성장판 시리즈 소설Q의 열번째 책이다. 여탕에서 사람들의 때를 밀어주며 발발이를 하는 세신사 엄마와, 여탕에서 자랐지만

무용가로 성공해 여탕을 탈출할 꿈을 꾸는 딸의 이야기가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필체로 그려진다. ‘몸’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여탕을 드나드는 여자들의 고단한 삶과 내밀한 속내, ‘성공’하지 못했지만 ‘실 패’하진 않은, ‘다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뒷모습까지, 김유담은 능수능란하면



서도 담백하게 삶의 면면을 고루 담아낸다. 고달프고 씁쓸한 삶을 날카롭게 직시해내는 작가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면서도, ‘그래도 괜찮다’는 다독임을 얻을 수 있는 단단하고 따뜻한 작품이다. /이종근 기자

목포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시편

■ 최기종 ‘목포, 예말이요’

‘목포, 예말이요(지은이 최기종 지음, 출판 푸른사상)’는 목포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 시집은 남도 특유의 토속적인 방언과 더불어 민중들의 정서, 풍습, 전통 등을

정감 있게 담아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수탈의 거점이기도 했던 목포의 역사와 민중의식을 생동감 있는 방언으로 쓰인 시편들은 목포 문학의 지형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작가는 부안군 동진면 당봉리에서 태어났다.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와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1985년 목포에 들어와서 함도여중, 청호중, 제일여고, 목포공고, 목상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은퇴하여 현재 남악리에서 살고 있다. /이종근 기자

금요수필 /제자 이승연

존경의 마음 갖는 달

이승훈



해가 바뀐 1월이다. 인디언들은 1월 새해를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이라고 이름 하였고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해오름달’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나는 1월을 무엇이라고 새로 이름을 붙여 볼까. 새 달, 계획하는 달, 첫발 딛는 달 아니지. 소견이 짧아서인지 인

디언처럼 마음을 되새겨 볼 수 있는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협경계 매화 꽃봉오리 올라오는 달, 바람이 깊어진 달, 봄소식 기대하는 달, 매화 꿈자리 달, 네가 오는 달, 솔밭의 눈이 쌓인 달, 백신 준비될 달은 어떨까?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 맞다. 새로운 마음을 갖는 달도 맞다. 존경의 마음을 갖는 달쯤 정해보는 것도 좋겠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것이다. 단지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내 주관만 옳다고 할 수 없다. 자연을 바라보듯 사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것이다. 옛것제 하얀 광목이 펼쳐진 듯 눈이 마당 가득 내렸다. 어린아이들이 본다 마음 가는 대로 노는 모습을 보았다. 가장 순수하여 높고 낮음이 없는 때이다. 그런데도 어린이를 버려두다 못해 악용하고 몸서리치게 험한 세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는 어린이를 위하여 모든 이가 나서야 한다. 같은 마음으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하는 곳이 종교와 학교일 것이다. 같은 눈으로 공정하게 바라봐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

인격이 있다면 가난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지식도 알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지식을 나눌 필요가 있었고 물건도 풍부한 시대이니 함께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내가 이번에 이사하는데 많은 것을 버려야만 했다. 웬 물건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소유욕이 많았나 보다. 미리 나눌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만 남는다. 물건도 그렇지만 마음을 나눌 수 없다면 아집과 편견으로 보이는 세상에 어떻게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학교에는 열정이 있는 선생에게는 나쁜

학생이 없다. 교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성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는 학생에게 배우려는 의욕을 북돋워 주는 것이다. 옛말에 학생들에게 배울 의욕을 고양하지 않고 교육하려는 교사는 차가운 쇠를 두드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학교는 종교에서 말하는 수행과 비교된다고 볼 수 있다. ‘이해인의 말’이라는 책에 나온 성철스님 말씀이다. “수행이란 안으로는 가난을 배우고 밖으로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것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다. 웬만큼 가운데 가장 큰 웬만큼 올고도 지는 것이다. 공부 가운데 가장 큰 공부는 남의 허물을 뒤집어 쓴 것이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조금이나마 따를 수 있을까.

학교는 비대면 수업을 작년에 경험하면서 교육과정과 수업 형태 등이 바뀌는 새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완성하고, 교육과정을 새로 짜며 새 업무가 주어지는 시절이 되었다. 새 업무와 담임 업무를 기피하려고 하는 세태 속에 있다. 그러나 젊은 교사 중에는 그래도 담임과 새로운 업무를 맡아 주었다. 그리고 평상시와 같은 일을 실수 없이 묵묵히 일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노력하는 교원들이 있어 학교의 장래는 밝은 것이다. 이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발로하는 달이 되겠다. 우리가 원하는 일을 얻게 되기 위해서는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긴다. 계획대로 일이 성사되는 것은 적다. 따라서 사람이나 행복은 그저 그냥 오지 않는 것을 알지 않는가? 자기 직분에서 일하고 어린이 마음 하나하나 공들여 보자고 다짐하면, 1월은 존경의 마음을 갖는 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발아래 눈은 그대로인데 남북에서는 매화가 피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언젠가 금둔사에 간 적이 있는데, 봄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는지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봄을 기다리는 만큼 각오가 필요하다. 봄의 의미를 알려준 분에게 존경의 표시를 하고 싶다. 매화꽃이 피려고 준비하고 있는 달에 존경하고 싶은 사람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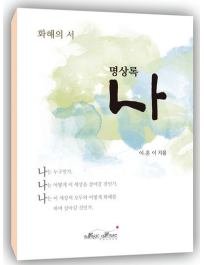
- 이승훈 수필가는

군산 출생, 마한 문학상 수상, 지평선 문학동인, 군산 대성중학교 교장
시집, 〈빈들의 소곡〉 신아출판사 외
미술포 에세이, 〈시와 그림 감성의 바다〉 열린출판 외
인물자료집, 〈2020 익산예인열전〉 공동집필, 익산문화관광재단

흡사 성경책을 닮았다

■ 이훈이 ‘상록 나’

‘명상록 나(지은이 이훈이, 출판 매직하우스)’는 저자가 이 책을 쓰는 데 30여 년이 걸렸다고 한다. 수없이 수정하고 다시 쓰면서 완성한 것이다. 이 책의 구성은 흡사 성경책을 닮았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지려고 노



간다. /이종근 기자

인간 교독의 내면을 응시한다

■ 김경희 ‘오래된 정원에 꽃이 피네’

소설가 김경희의 장편소설 ‘오래된 정원에 꽃이 피네(문학들)’가 출간됐다. 소설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의 이름은 지숙이다. “지혜롭고도 맑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지숙이 “배냇저고리를 하다 웅알이를 하고, 고개를 가누고, 엮드리기를 하고, 방바닥을 기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지숙의 어머니 박 씨는 첫날 밤을 치르던 날 신랑의 기침 소리가 잦다는 걸 이상하

게 여겼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순순히 운명을 받아들인다. 박 씨는 “긴 봄날의 해를 건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가난 탓에 팔리다시피 시집갔다. “과분할 뒤에는 반드시 치명적인 오점이, 음흉하게 숨어 있는 복병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을 만큼 당장이라도 식구들의 입 하나를 떨어내는 일이 더 중요했다. /이종근 기자



넋지 이론을 인간의 삶과 일에 적용

■ 오웨인 서비스 ‘아주 작은 생각의 힘’

‘아주 작은 생각의 힘(지은이 오웨인 서비스, 출판 별글)’은 넋지 이론을 인간의 삶과 일에 적용한 전무후무한 작품이다. 저자인 오웨인 서비스와 로리 겔러거는 행동과학을 전공한 학자이자 영국 정부에서 일하는 행정가이며 주목받는 사회적기업인 행동통찰팀(The

Behavioural Insight Team)의 일원이다. 일명 ‘넋지팀(Nudge Unit)’이라고 불리는 행동통찰팀의 런던 본사와 맨체스터, 뉴욕, 싱가포르, 시드니 지사에는 100명이 넘는 연구자들이 근무 중이며, 리처드 탈러 교수가 이곳의 고문이다. /이종근 기자



새해의 첫 날을 맞이하는 그린이네 이야기

■ 김영진 ‘설날’

‘설날(지은이 김영진, 출판 길벗어린이)’은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하며 새해의 첫 날을 맞이하는 그린이네 이야기다. 그린이네 가족은 설날을 앞두고 집 안 곳곳을 깨끗이 청소했다. 마트에서 차례 상에 올릴 음식 재료들과 친척들에게 선물할 과일도 준비했다. 친척들이 모이

자, 모두 안부를 나누고 다 함께 차례 상에 올릴 음식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설날 아침, 가족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로 차례를 지내고 덕담을 나눴다. 그런데 세배를 하고 난 그린이가 뭔가 골똘히 계산하는 듯 보이네요. /이종근 기자

